

새 책

▶돈의 정석(찰스 윌런 지음·김희정 옮김)=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가 알려주는 돈 공부 기본서다. 돈을 둘러싼 경제 행위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돈이 만들고 굴러가게 하는 세상에서 금융 시스템의 작동 원리, 신용거래, 물가, 금리, 환율 등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히 보여준다. 부키. 1만8000원.



▶기이한 DMZ 생태공원(강현아 글·그림)=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며 70년 가까이 긴장감이 짙은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이곳에 사는 동물과 식물은 전쟁과 긴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런 상상을 그림책 안에 풀어놓았다. DMZ 생태공원 안내자인 '담비'를 따라 전쟁 이후 살아남기 위해 모습과 행동을 바꾼 동식물을 만나며 평화에 대한 염원을 속삭인다. 소동. 1만5000원.



▶중간이 있어야 행복하다(하경환 지음)=모든 지자체가 민관협치를 내세우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해법에 대한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돕는 중간지원조직이 중요하다. 이 책은 민관협력 현장을 10년 넘게 누벼온 저자가 펴낸 중간지원조직 지침서다.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따뜻한 조언이 담겼다. 상상. 1만9000원.



▶내게는 흥시뿐이야(김설원 지음)=어른들의 파산 선고로 홀로서기를 하게 된 열여덟살 '아란'은 나이를 숨긴 채 치킨집에서 일을 시작한다. 유난히 흥시를 좋아했던 엄마가 돌아올 날을 위해 눈에 흥시가 보일 때마다 사 모으지만 결국 엄마와도 연락이 끊긴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삶을 꾸려가는 아란과 파산한 도시 안에 남은 사람들이 서로 보듬는 모습이 애뜻하다. 창비. 1만3000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정성현 글·김이주 그림)=아빠의 일터를 따라 낮은 제주로 이사를 오게 된 '지영'은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다 이마에 상처를 입는다. 아픈 것도 속상한데 상처를 보며 놀리는 친구들로 인해 마음에도 생채기가 났다. 지영이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과정은 상처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을 응원한다. 꿈터. 1만1000원.



▶하늘(작은것이 아름답다 지음)= '작은것이 아름답다'가 생명의 공간을 주제로 지난해부터 펴낸 생태환경잡지 첫번째 특별호 묶음의 마무리다. 특별호는 '땅'을 시작으로 '바다', '강'에 이어 이번엔 '하늘'을 말한다. 오랫동안 고르게 흐르며 순환하던 하늘이 아무렇지 않게 만들고 쓰고 뱉어온 것들로 인해 흔들리는 지금, 더 늦기 전에 하늘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꺼내놓는다. 작은것이 아름답다. 1만3000원.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봄이 오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것입니다”

김은희 작가 대본집으로 읽는 '킹덤 2'

코로나 시국 화제 좀비물 조선 창궐한 역병과 사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회자되는 영화가 '컨테이션'이다. 옛 데이먼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던 작품으로 2011년 국내 개봉된 이 영화는 '아무 것도 만지지 마라'는 홍보 문구처럼 이야기의 전개가 지금의 감염병 시국과 놀랄 만큼 닮았다. '컨테이션'이 9년 뒤에 벌어질 일을 예견했다면 오늘날엔 한국에서 만들어진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리즈가 있다. 얼마 전 시즌2가 전 세계 동시 방영되었는데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이 작품을 두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걱정된다면 ‘킹덤 2’를 보라”고 했다.

주지훈, 배두나, 류승룡 등이 주연을 맡은 좀비물 '킹덤' 시리즈는 경상 땅에 퍼진 역병을 소재로 했다. 그 역병은 피 냄새를 맡으면 미친 듯이 사람을 물어뜯는다. 시

즌 1에서는 죽었던 왕이 되살아나고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 이창이 조선 땅의 끝에서 굶주림 끝에 괴물이 되어버린 이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시즌2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역병에 걸린 생사역들과 싸우는 것은 물론 역병의 원인인 생사초의 비밀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격한 갈등이 그려졌다.

'킹덤 2' (연출 김성훈, 박인제) 6부작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다. 시즌1부터 극본을 담당한 김은희 작가의 대본집이 묶였다. 작가의 최종 대본으로 방송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 280여 쪽으로 출간됐다. 말미엔 스틸컷이 실렸다.

주인공 이창은 자신을 밀어냈던 궁으로 다시 향하면서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간다. 서비는 목숨을 걸고 역병에 얽힌 숨은 진실을 쫓는 의녀다. 그 대척점에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며 조선을 지배하던



영의정 조학주, 핏줄과 왕좌에 대한 집착으로 상상도 못할 음모를 꾸미는 중전이 있다. 지옥으로 변한 조선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사투가 펼쳐지는 속에 그들이 어떻게 각자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며 성장해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감상 포인트다.

대본집 6부에서 서비가 이창에게 건네는 대사에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오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것입니다”라는 대목이 있다. 독자들은 그 장면에서 머잖아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란 희망을 읽고 싶을지 모르겠다. 마음의숲. 1만5000원. 진선희기자

남성이 되고 알았다, 그게 성차별임을

트랜스젠더 과학자의 자서전 ‘벤 바레스’

최근 종영된 청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다. “내가 나인 것에 다른 사람의 납득은 필요 없다.” 극중 트랜스젠더인 인물이 세간의 시선과 당당히 맞서는 장면에서 내뱉는 말이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트랜스젠더로 ‘진정 멋진 삶을 살았다’는 이가 있다. 세계적인 뇌신경과 학자였던 벤 바레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교수다.

바레스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여자가 아니라는 감정 때문에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마흔 살에는 유방암에 걸린 것을 알고 양쪽 가슴을 절제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가 제이미스 그린에 관한 기사를 접한다. 이를 계기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마흔 세살에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어느 트랜스젠더 과학자의 자서전’이란 부제를 단 ‘벤 바레스’는 그의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2017년 책장암으로 먼 길을 떠나기 직전에 탈고한 원고로 묶였다.

바레스 교수는 성전환 이후 MIT와 다트머스 의학대학원을 다닐 때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차별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대학 시절 유일하게 문제를 풀었을 때 교수는 그에게 남자 친구가 대신 풀어준 거 아니냐고 했었다. 생전에 그는 적극적으로 학계에 만연한 성차별에 문제를 제기한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총장이 ‘여성은 날 때부터 열등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을 땐 ‘네이처’에 ‘성별이 문제가 되는가’란 글을 기고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결국 래리 서머스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편견과 차별에 관한 한 우리 모두 ‘괴물’이다”라고 했던 그는 “보편적인 무지와 혐오의 시대에 트랜스젠더로 성장하는 것은 힘겹고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람들이 덜 무지하고, 더 응원하고, 더 이해하는 미래의 세상에서는 이런 고통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따뜻한 스승이자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교육자로 살다 갔다. 조은영 옮김. 해나무. 1만50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고진숙의 ‘... 제주4·3’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제주였을까”



‘청소년을 위한 제주4·3’ 속 그림. 무고한 이들의 희생이 컸다.



다시, 4월이 왔다. 봄꽃 소식과 때를 맞춰 이 계절이 되면 ‘출판 시장’에도 제주4·3을 다룬 책들이 잇따른다. 이번엔 제주가 고향인 고진숙 작가가 쓴 ‘청소년을 위한 제주4·3’이 나왔다.

‘작가의 말’을 들어보자. “민중화운동이 일어나고 옛날 사건들이 재조명되면서 감추어진 역사인 제주의 4·3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인 내게 그것은 마치 역사책에서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를 입었다’와 같이 별다른 감흥이 없는 사건으로 느껴졌다.”

이처럼 어른들의 무거운 침묵 속에 4·3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던 그가 4·3에 눈길이 간 계기는 4·3 평화공원 방문이었다. 각명비에 있는 고향 마을 사람들의 희생자 명단에서 그저 누구의 아끼라고 새긴 걸 봤다. 이름도 없이, 채 피지도 못한 채 잠들어야 했던 아기의 죽음은 그를 4·3으로 이끌었다. 제주지역 도서관에서 향토 자료를 찾고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한 권의 책을 엮었다.

‘청소년을 위한 제주4·3’은 큰 역사 속에서 4·3을 볼 수 있도록 짜였다. 당시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였는지, 왜 하필 제주였는지, 제주만의 특별한 무엇이 이 수난을 만들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려 했다.

시간 순으로 써나간 4·3의 전개 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과 함께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했던 이 땅이 냉전체제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끝내 제주에서 피바람이 이는 참사로 치닫는다. 그 사이사이 10가지 작은 주제로 ‘해방에서 분단까지’를 배치해 우리 현대사에서 4·3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폈다. ‘제주 역사’ 코너도 별도로 만들어 해녀 항쟁, 펜당 문화, 민란과 장두 등을 소개하며 제주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정 그림. 한겨레출판. 1만2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주택용 태양광 50% 무상지원 선착순 모집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2020
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